#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흰 보좌 심판!(7)

- 읽을 말씀 슥 14:9-21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곳곳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을 확인함으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3) 천년왕국에 대한 구절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① 천년왕국 때 어떻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백 세가 못 되어 죽거나 저주받을 수 있는가?

이사야는 65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17-25).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17)**"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20-22)**"와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인 천국인데 '어떻게 백세 혹은 백세가 못 되어 죽거나 저주를 받는 자가 나올 수 있지? 왜 겨우 수한이 나무의 수한 같지?'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구약의 예언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 산들이 겹치듯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두 가지를 겹쳐서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천년왕국 때의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를 수 있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지구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의 지구는 인간 타락 이전의 에덴동산 같은 상태로 회복된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연구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대환난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들은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악을 행하여 저주를 받는 자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의하면 65장 18-23절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대환난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곤혹스러웠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죽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이스라엘은 대환난이 아니라 재림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기상천외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롬 11:26). 그러자 의문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인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재림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궁극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거나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② 왜 재림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전쟁 뒤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나?

에스겔은 38-39장에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본 예언은 계 20:8-9과 같은 것으로 보며, 거기에서 '곡과 마곡'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성도들의 최후의 적으로 도전하다가 패배하여 유황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5-26절에 의하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부끄러움을 품고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앞의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BC 주석에서는 23-29절을 "후기" 로 보았고, 현대성서주석은 25-29절에 대해 "곡과는 아무 상관없는 마지막 단락"이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이 부분은 곡과 마곡에 대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과 모순이 아닙니다.

③ 천년왕국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초막절은 또 왜 지키나?

스가랴 선지자는 14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드웨인 린지는 1절을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게 될 환난" 으로, 2절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는 당연히 재림입니다. 따라서 그 뒤 구절은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이 천년왕국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첫 번째 의문 : 천년왕국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9절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12-15)라는 구절 때문에 생겨납니다. '어떻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또 전쟁을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친**" 이 과거시제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1-2절에 대한 추가설명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드웨인 린지도 스가랴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 삽입구적인 회상(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싸운 열국이라는 말은 2절과 연관된다)"이라고 썼습니다.

– 두 번째 의문 : 천년왕국 때 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스가랴는 16-19절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들과 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썼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구약시대도 아니고 왜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 구절을 읽으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보기에 미혹된 자들의 주장처럼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따라야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지킬 필요 없이 성찬식을 거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에 무사히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궁극적인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성취되므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은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때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천년왕국 때 지구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땅에 저주가 풀리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씨를 뿌려 놓으면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마다 풍년이 거듭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가장 어울리는 절기이며, 천년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초막절을 예로 든 것입니다.

나아가서, 20-21절에 "**여호와의 전**" 즉 성전과 "**제사**"가 나옵니다. 성전과 제사제도는 신약시대에 끝났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이것들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구약적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줍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모든 성속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히브리관점으로 성경보기" 에 미혹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구약의 음식 규례들을 지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거룩하게 여기는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 라고 칭했습니다(롬 15:1). 그리고 그들이 날들을 지키는 것을 "약점"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보기" 에 미혹된 자들은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 라고 부른 신앙형태를 정상으로 여기고 권장합니다. 그들의 "약점" 을 강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이점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 ● 나눔과 적용

성경은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진리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들을 나누어 봅시다.